

SK에너지, 2008년 임금협상 타결

임금동결 합의안 투표 1752명 찬성 가결 ... 고용안정협약서 체결 합의

SK에너지 노사가 2007년 임금협상을 완전타결했다.

노조는 임금동결을 골자로 하는 2007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놓고 전체 조합원 2572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2043명(투표율 79.43%)이 참가한 가운데 1752명이 찬성해 가결시켰다고 1월14일 발표했다.

SK에너지 노사는 1월15일 울산 본사에서 신현철 부회장과 임명호 노조위원장 등 노사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조인식을 갖기로 했다.

노사는 12월31일 울산 컴플렉스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임금 특별교섭에서 임금 동결과 조합원 노고에 대한 보답으로 기본급의 150%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화합 장려금으로 기본급의 50%를 각각 지급하고 2007년 경영성과금은 2008년 1월 결산시점에 지급키로 합의했다.

또 회사는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인위적인 인력 감축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품질 향상과 원가 절감, 안정 조업 등 생산성 향상에 노사가 적극 노력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안정협약서를 체결하는 데도 합의했다.

SK에너지 노사는 2007년 8월31일 2008년 임금협상을 위한 첫 상견례를 가진데 이어 20여차례에 이르는 본 협상과 특별교섭을 가진 끝에 타결에 이르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1/14>